

#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부교수

##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작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호흡기 감염질환은 전 세계에서 1억 6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3백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신천지 신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으나 이후에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차 대유행 때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주목을 받았고 정통 교회들은 그것을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한 탓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정통 교회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의 발병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홍역을 치렀고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바이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했고 그 밖에 여러 대형 사고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sup>1</sup>에서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은 성공적인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서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이 이론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은 크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인간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각 사회 안에서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 역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지나 n차 대유행의 반복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접종이 시작되기도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심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바이러스 종식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제한이 풀려도 성도들은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기를 꺼리게 될 수 있다. 교회 헌금도 줄어서 교회마다 지출을 줄이고 있고 예산 삭감도 감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수개월이 될지, 수년이 될지 모르는 고난 끝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지 확

---

<sup>1</sup> 울리히 벡, " <위험사회>,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2014).

신하기 어렵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는 다시 찾아올 것인지 부실해진 교회 재정이 이전으로 회복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렵고 설령 회복이 된다고 해도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이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류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환경 문제, 그리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현재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 시기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개혁을 감행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코로나시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이를 기회 삼아 인류를 위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단지 수동적으로 방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전염병에 취약한 개신교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종교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이 수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 조사연구”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3대 주요 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는 총 54건이며, 이중 천주교 2건, 불교 0건, 개신교는 51건, 기타(신천지) 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종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54건 중에서 개신교회가 51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감염자 수에서는 전체 7,866명 중 신천지 다음으로 개신교가 2,953명이었다.

개신교가 전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개신교회들이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차로 종교 조직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개신교 안에는 400개에 가까운 매우 다양한 교단이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개교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교단 안에서도 일사불란한 모습을 기

대하기 어렵다. 천주교회는 단일조직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가 가능하고 불교는 개신교 이상으로 종파가 다양하지만 조계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태고종이 3분의 1정도가 되어 두 종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통제가 용이하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신앙생활에서 개신교가 가장 활발하고 특히 예배 출석을 중시하며 실제 출석률도 가장 높다는 점이다. 종교 전문가들은 개신교 신자에게는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가느냐고 묻고, 천주교 신자에게는 한 달에 몇 번 성당에 가느냐고 물으며 불교 신자에게는 1년에 몇 번 절에 가느냐고 물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표현한다. 최근에 발표한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sup>2</sup>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의 종교 의례 참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난 8월에 대통령과 개신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인사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하면서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하여 항의성 발언도 하였다. 실제로 개신교계에서는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전쟁 통에도 지속되었다고 말하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으며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예배와 모임을 중시하고 자주 모이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개신교회가 전염병에 취약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규모가 작은 소형 교회들이라는 점이다. 이번 기사연의 조사에서도 교인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의 사례는 총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형 교회는 10건, 중형교회는 1건, 대형 교회는 8건으로 조사되었다. 중형 미만으로 보면 30건으로 압도적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큰 대형 집회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다. 작은 교회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방역만 잘 하면 바이러스 위험도 크지 않고 오히려 친밀한 공동체적 분위기가 교회를 더욱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환경 변화에도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큰 교회들은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2미터 이상의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실내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작은 교회

---

<sup>2</sup>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2015.1.28.).

들은 공간이 넓지 않아서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비용 문제로 소독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친숙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허술해진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한두 사람이 쓰지 않기는 어렵지만 적은 수의 친밀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교계 매체에서는 작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교회 관련 확진자 현황(이단 포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주일 예배를 통한 확산은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소모임과 주일 예배 구분이 모호한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sup>3</sup> 이것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교인 수가 3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한국 교회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교인 수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이고 300명 이하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9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면 감염에 노출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례 당 평균 감염자 수로 환산하면, 대형교회는 238명, 중형교회 33명, 중소형교회 22명, 소형교회 21명으로 대형교회가 가장 많았다. 집단감염의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 전파될 위험이 크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대형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는 공식 예배 뿐 아니라 예배 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감리교의 속회가 원형으로 알려진 다양한 소규모 모임들이 구역이나 다락방, 목장, 소그룹, 셀모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의 교제에서는 자연스럽게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일부 소그룹 모델에서는 공동 식사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기도 한다. 보통 때에는 이러한 활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뿐더러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전염병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매우 위험한 활동이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수의 친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교회 소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

<sup>3</sup> 최승현, “교회 관련 확진자, 대부분 소모임, 식사 과정에서 발생” <뉴스앤조이> (2020.7.10.) [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3](http://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3).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비합리적인 신앙관을 가진 교회들이 전염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은사주의적(기도원, 방언, 신유집회 등) 신앙 성향을 가진 교회의 사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만 14곳으로 교단별 구분보다 더 높은 발생 사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사주의적 신앙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은사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 성령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난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특이한 신앙 훈련이나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앙의 체험이나 은사를 강조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보건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전염병 시대에 강조되는 교회의 공공성

전염병에 대하여 취약하게 되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도 어려울뿐더러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종교인들과 종교 기관에 대한 실망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18세기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종교가 몰락한 것은 오늘날 종교에 큰 교훈이 된다.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종교가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종교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대응 방식은 교회에 대한 공신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작년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것은 교회의 공신력 하락에 큰 요인이 되었다. 모든 국민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기본이 되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함께 숙식을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집회 참가를 숨기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주춤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역시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는 교회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주변 상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신앙 모습과 극우적인 정치색은 기독교인들마저도 교회에 대하여 큰 실망을 갖게 함으로써 탈교회 현상까지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하게 권고하여 주일예배조차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공익성과 관련이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었고,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는 지속되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고 기독교인들끼리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면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벌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공적인 기준에 의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신앙고백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인 자신의 기준만 아니라 공공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60%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았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더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산하 21세기교회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기독교청년 의식조사<sup>4</sup>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에 대해 2명 가운데 1명인 51.6%만 동의했고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에 대체로 동의(70.6%)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의 코로나19 상황 대처에 대해 낮게 평가를 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20.0%에 불과하였고, ‘감염확산을 막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6.1%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전염병 확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하 기윤실)이 10년 넘게 조사하는 동안 거의 변화 없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신뢰도는 코로나 사태 동안 더 하락하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윤실 조사에서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는데, 2021년에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비율이 21%로 더 감소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서 7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개신교 집단 감염의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면서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원에 대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종교시설 확진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11%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수가 전체 중에서 평균 44%로 인식하고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up>5</sup>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감염자가 종교시설에서 나왔고, 그중에서도 교회에서 절대 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교회의 책임이다.

---

<sup>4</sup>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2020.1.27.).

<sup>5</sup>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2021.1.29.).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짐이 되거나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회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 기관이고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서의 기본 가르침이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세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만족해하는 폐쇄적인 동질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 성찰이 필요한 한국교회

앞에서 소개한 울리히 벡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원자력 기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통해서 성찰해야 하고 집합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개신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130년이 지났다. 전래 초기에는 신흥종교였던 개신교가 불과 1백 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주류 종교가 되었고 지금은 신자 수에서 1위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주의와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 본연의 역할은 부차적인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고 여기에 다른 교회들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개교회주의가 심화되면서 교회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도 어렵게 되었다.

개교회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개교회주의는 ‘개교회가 교회 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서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회성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 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개념이다. 또한 ‘죄수의 딜레마’와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주변의 다른 교회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교회 중심의 활동을 한다면 교회들 사이에 협력은 불가능해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져서 전체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목협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뢰도는 2012년 63.2%에서 2017년 35.5%로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인 수가 적은 작은 교회에서는 신뢰도가 더 적었다.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조차도 교회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성찰이 필요하다. 성도 개인도 성찰이 필요하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이루어온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성찰의 또 다른 의미는 내부에 성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 현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듯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의 시민사회는 살롱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계에는 이러한 공론의 장이 부재하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활발한 토론과 회의를 주도하면서 ‘토론 공화국’의 면모를 보여 왔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저 믿기만을 강조할 뿐 깊이 ‘상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각 교회의 의사결정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나 종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난립하여 서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표출할 뿐 이들 사이에 협의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권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이 교회 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론의 장에서는 단순히 자기주장을 외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박지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언제나 스스로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성찰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성찰과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거듭나는 기회를 만들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염병 시대에 교회의 역할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시기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신흥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주요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이 돌던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했고 환자들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염병을 이해했고, 이웃 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다.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돌봄만으로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위대한 종교로 성장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중세 기독교는 달랐다. 거대 왕국을 이룬 중세 기독교는 전염병에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았다가 오히려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sup>7</sup> 사람들은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이지만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기보다 더 어

---

<sup>6</sup>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4장을 볼 것.

<sup>7</sup>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2020), 36.

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한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이란,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중심에 있었는데, 이 세 국가의 공통점으로 종교가 전염병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sup>8</sup>

이러한 점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타심에 기초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체와 질병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통계로 보면, 상류층에 비해 하류층은 출생 시의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고, 영아 사망률이 높으며, 어른이 된 뒤에도 더 작고, 건강하지 못하고 더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들도 하류층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질병에 시달리더라도 제 때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결과로 병을 더 키우게 되고 일찍 생을 마치게 된다.

이번 코로나 19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염병이 계층을 구별해서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서 걸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류층의 사람들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와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장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으며 생계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건강식품을 사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부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되면 돈을 들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만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일터에 나가면서 자신의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sup>9</sup>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

<sup>8</sup> 김용섭,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253.

<sup>9</sup> 임승규 외,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서울: 한빛비즈, 2020), 267.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친숙성을 높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민으로서 연대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을 수 있다. 특히 자기희생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사회 곳곳에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인 개교회들은 자신이 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실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앙의 전통과 그 정수를 지키면서도 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신앙공동체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신앙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